

시민성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 분석과 기독교사회윤리적 답변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부교수)*
목광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승환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성신형 (송실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의 시민성과 한국 개신교
- II. 시민성의 기본 요소와 가치들
 - 1. 공동체의 존속과 사회통합 요소로서 시민성의 필요성 대두
 - 2. 시민교육의 내용과 구성요소로 본 시민성의 기본 가치들
- III. 공적 이성과 시민종교 논의
 - 1. 자유주의 공적 이성 논의와 종교의 관계
 - 2. 시민종교 논의와 교회의 공적 참여
- IV. 한국 개신교와 근본주의, 그리고 시민성 분석
 - 1. 근본주의 개신교(기독교인)들의 시민성 현상
 -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개신교(기독교인)의 시민성
- V. 건강한 기독교시민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적 대안
 - 1. 건강한 기독교 시민성 형성을 위한 롤즈의 방안: 민주주의적 덕성을 통한 시민성의 의무
 - 2. 건강한 기독교 시민성 형성을 위한 개신교의 방안: 평화와 현대의 내러티브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8.03>

* 주저자, sypark@knsu.ac.kr

** 공동저자, epistle7@uos.ac.kr

*** 공동저자, kimhanbin@hanmail.net

**** 교신저자, seongshil@ssu.ac.kr

• ABSTRACT •

Analysis on Citizenship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and its
Christian Social Ethical Approach

Prof., Park, Sun You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 Mok, Kwangsu (University of Seoul)

Lecturer, Kim, Seung Hwa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of., Seong, Shin Hyung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itizenship of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using the methodology of big-data and guides the social ethical direction of Korean Protestantism of the present da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basic values of citizenship in terms of citizenship education while looking at its development in Western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argues how religion (Christianity) reveals citizenship related to the concept of public rationality and civil religion.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examines the fundamentalist trends of Korean Protestantism to see why it failed to develop such civility in a healthy manner by focusing on big data trends on the levels of civility that Korean Protestantism is currently displaying in Korean society.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Korean Protestantism is shown to be at a negative level in citizenship in certain areas in the Korean society. In order to overcome this phenomenon, this research suggests a social ethics alternative, which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virtue in terms of public rationality for the passive appearance of religion, and for the realization of community virtues in order to lead a life of hospitality for peace on an active level.

Key words: Citizenship, Public Reason, Religious Citizenship, Fundamentalist Protestantism, Peace and Hospitality,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의 시민성과 한국 개신교

2020년 한국사회는 코로나19(Covid 19) 위기를 경험하며 지난 몇 개월 간의 한국사회가 경험한 일들은 한국 개신교(기독교)에게 너무도 큰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중에서 본 연구는 시민성에 주목한다. 시민성이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덕목)과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민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정권교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김대중 정권 탄생 이후 개혁적인 행정부가 선출될 때마나 한국 개신교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며,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많은 한국 개신교인들이 극우 정치인들의 집회에 참여하여 ‘태극기부대’를 형성하면서 극우 세력의 주축이 되었다. 특히 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근본주의 기독교 신자가 참여한 2020년 8·15 집회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의 시민성은 바닥을 드러내었다. 이제 공공연하게 한국 개신교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가 개신교회의 시민적 수준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¹⁾ 이에 본 연구는 시민성의 주요 가치와 종교(기독교) 시민성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 2020년 2월.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개신교의 신뢰도는 긍정 31.8% 부정 63.9%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별 신뢰도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가톨릭(30%), 불교(26.2%), 개신교(기독교, 18.9%)로 나타났다. 기윤실에서는 지난 2009년(26.1%), 2013년(21.3%), 2017년(18.9%)년에 걸쳐서 신뢰도 조사를 하였는데, 처음 조사부터 계속 그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개신교인들 중에 극우 정치세력에 참여하고 있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다. 서구사회의 좌·우 논쟁과 한국사회의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서구의 좌·우 논쟁은 민족주의적·인종주의적인 경향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드러나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민족주의가 좌파의 가치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극우 세력은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극우 기독교인이라는 용어보다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라는 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고, 이를 토대로 한국 개신교와 근본주의 개신교의 시민성의 양상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개신교, 특히 근본주의자들이 드러낸 시민성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답변을 시도하고자 한다.

시민이라는 용어는 기원전 6세기 경 그리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고대 로마, 중세, 근대를 지나오면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 사회의 도시국가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으로 자유민만을 인정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민의 개념은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에 있었으나,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면서 주체성을 가진 시민의 개념은 근대시기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의 시민성은 크게 다섯 단계로 변화하였다. 시민성의 변화의 첫 단계는 로크와 홉스가 제시했는데 홉스는 국가와 개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계약'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그는 과거 통치자와 국가를 나눌 수 없었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통치자와 분리된 '국가'를 주장하면서, 국가를 시민들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하는 국가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로크는 홉스의 계약 개념을 발전시켜 개인이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시민 개념을 도출하였다. 둘째 단계는 민족개념과 국가가 하나로 융합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프랑스 시민혁명(1789)을 거치면서 공화정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민족 개념이 국가와 융합되어 혈연적 의미의 민족개념이 사회적 의미로 발전되었다. 이로써 근대국가는 국가와 민족 정체성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국가 밖의 사람들(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배타적 시민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제국주의가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 시민은 동일성의 논리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절대왕정 국가의 신민(臣民)에 더 가까웠다. 세 번째 단계는 20세기 초 중반 자본주의 발달로 국가

간의 이주나 이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로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위협받게 되면서 주류집단의 가치에 동화되도록 하는 동화주의 시민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시민들은 주류집단의 동화주의 시민성을 거부하면서 다문화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 시기가 네 번째 단계이다. 동화주의에서 비롯된 다름과 차이를 정치의 주요 가치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서 비로소 동일성의 논리가 붕괴되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시기는 다문화주의 시민성이 포스트모던 철학과 만나는 시대로 동일성의 논리를 넘어서 차이를 정의로 인정하고 세계시민성 혹은 트랜스내셔널 시민성을 강조하는 단계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²⁾

한편 한국 사회에서 시민성은 서구 사회의 긴 발전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앞선 단계들이 변형되고 응축되어 발전되었다. 한국인은 서구 사회가 경험한 봉건국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한국 전쟁, 남북 분단과 대립, 국가주도의 산업화 등을 경험하면서, 매우 짧은 시기에 소위 말하는 도시화, 산업화, 개인화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나 민족의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면서 권리와 책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유에 기초한 시민성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시대적인 단계로 정리해보면 첫째 단계는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이 발생했던 시기로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가 성립되던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1962년 이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주도의 산업체계를 발전시켜왔던 시기로 당시 한국 사회는 국가 자본주의에 저항하여 민주성을 그 중심가치로 형성되어 갔다. 세 번째 단계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시기로 비로소 한국 사회는 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시민성을 보장하게 되었다.³⁾ 현재 한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를

2) 이종일, “사회변동과 시민성 논쟁,” 『사회과교육연구』 25-3(2018), 10-11. (1-19).

경험한 세대와 1962년 이후 산업화를 이뤄냈던 세대가 양립하면서 중심 세력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한 세대들의 대립 현상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형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세력 간의 진영논리의 대립은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생산해내는 기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민주주의의 성숙과정에서 경험한 세대갈등과 정치적 대립에서 기인한 혐오와 배제(exclusion) 현상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포용적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위해 공존의 시민성을 형성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⁴⁾

시민성은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산물로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왕정의 붕괴와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시민사회의 발달과정에서 출발한 개념이지만, 현재는 전 지구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통용되는 개념이다. 시민성은 특정 지역과 사회가 원하는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 기본 철학이자 원리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시민성이 구체적으로 이해되며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은 교육 현장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한국에 앞서 공교육과정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서구사회의 시민교육과 시민성의 가치, 시민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민성의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서구 기독교가 세속과 이성의 영역에서 자리잡고 있는 시민성을 어떻게 종교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개신교(기독교)의 현재의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개신교 근본주의로 진

3) 박상필, “시민사회의 한국적 적용과 변용,”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 130-136. (109-145)

4) 정재원, “혐오사회와 공존의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2019), 100-101. (99-118).

단하면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시민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구방법으로 문헌 고찰과 빅데이터 분석을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개신교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발화시키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로부터 촉발된 시민성 논의에 대한 성찰적인 기독교 사회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민성의 기본 요소와 가치들

현대 시민성의 기본 가치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먼저 거대 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앞서 언급한대로 근대 역사의 과정에서 혁명, 국가, 민족, 자유, 다문화 등의 가치를 형성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20세기 후반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필요를 위해 시민교육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시민성의 기본 가치들이 형성되었다. 본 장에서는 시민성의 기본 가치들의 형성 배경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다.

1. 공동체의 존속과 사회통합 요소로서 시민성의 필요성 대두

현재 서구 사회의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한 국가와 지역의 역사, 정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적 필요나 관점보다는 사회적 필요로부터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선 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통합의 가속화, 다문화사회의 심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개인의 권리보다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현상 등이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중요시하는 시민성 함양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게 되었다.⁵⁾ 그 결과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은 정치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보다 개인의 책임과 의무, 공동체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적 도덕성(Civic Morality)과 시민 공화주의 사상(Civic Republicanism)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였다.⁶⁾

미국에서의 시민성 논의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화되었다. 미국의 근대 국가 형성사가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고 처음 정부를 수립할 때부터 민주주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국가형성을 전제해왔으며 1865년 내전을 겪으면서부터는 국가의 통치와 운영의 관점과 필요에 의해서 사회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미국식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1916년에 이르러서는 존 듀이(John Dewey)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Democracy)’에서 시민교육을 학문적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⁷⁾ 이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착되어가는 중에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은 시민교육보다도 사회과 교과(social studies)를 더 강조하였고, 1970년대는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 전쟁과 갈등을 반영한 사회과 교육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종교 근본주의 같은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대한 반감과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방편의 하나로 사회과 교육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서 시민성 함양

5) C. Harber, "Not quite the revolution: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M. Schweisfurth, L. Davies & C. Harber eds., in *Learning democracy and citizenship*. (Oxford: Symposium Books, 2002).

6) B. Crick,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7) Diana Owen, "Comparisons of Parliamentary and Coordinated Power Systems", presented paper in *Civic Education and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German-American Conference, Indiana (2011).

을 위한 교육, 즉, 윤리, 도덕, 시민교육, 종교교육 같은 과목들이 학교로부터 배척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사회주의 사상이 몰락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⁸⁾ 다시 말해 사회주의 사상이 붕괴되고 이데올로기 전쟁이 종식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다시 한 번 사회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등장 배경과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현재 시민교육의 내용과 배경은 새로운 미국식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의 함양을 도모하고, 미국의 전 세계에서 의 역할과 권리, 책임에 대한 인식과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성 접근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교육의 내용과 구성요소로 본 시민성의 기본 가치들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시민교육을 국가교육과정안에 도입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성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02년 이후 현재 2020년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시민교육 교육개혁을 통하여 시민교육의 요소들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는 시민교육에서 제시된 시민성 요소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재구성한 것이다.

8) Kisby, Ben, & Sloam, James. "Revitalising Democracy", in *Civic Educa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resented paper, Canada (2009).

〈표 1〉 시민성의 기본 요소⁹⁾

시민성의 요소	개념
사회적·도덕적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속한 사회(학교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에서 행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 행동 • 개인의 관점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것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안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참여 등의 서비스학습을 포함) • 시민성을 실천하는 방법이자 도구 •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부터 크고 작은 지역사회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 등
정치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와 문제점, 실천지향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국가와 세계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 • 민주주의적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삶을 실천하는 것
민주주의와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 정치체도와 사법제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역할 이해 • 개인은 민주주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유, 정의로서의 공평과 법 규율, 힘과 권위,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함 • 정의는 아동과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책임을 통해 이해되어야 함 •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수준의 책임에서부터 의회와 국회 등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받는 책임까지도 이해하는 것을 포함
권리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 책임, 즉 정치적, 법적, 인간적, 사회적, 시민적, 도덕적 수준에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이해 •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이해 •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도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함

9) 아래의 세 문서에서 종합하여 구성함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QCA)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the Crick report)*. (London: QCA, 1998).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uthority(QCDA) (2010). Citizenship Programme of study for key stage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08347/SECONDARY_national_curriculum_-_Citizenship.pdf

정체성과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정체성을 이해 • 다중정체성에 대한 이해 - 개인이 속한 국가의 역사와 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더 넓은 세계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학습 •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사회가 초래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어울려 공존하는 법을 이해함
----------	---

위의 표에서 제시한 시민성의 구성요소 외에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시민성의 요소와 가치에는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추구와 평등, 법에 대한 존중,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추구 등이 포함 된다.¹⁰⁾ 이는 시민성이 자칫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민성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누려야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모든 사회적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틀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법에 대한 존중을 통해 법과 제도로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 아닌 타인에게도 동일한 자유와 권리, 평등,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시민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발표된 유럽연합의 시민교육 진흥방안에서는 인내와 관용, 차별과 배제 금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다루기 위한 요소들을 포함함으로써 시민교육을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이상의 시민교육의 요소를 통해 살펴본 시민성 요소와 가치들은 2020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극우보수 집회에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도 필요한 시민성의 기본 요소와 가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법과 제도 안에서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의 실천, 타인에

10)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promoting-citizenship-and-common-values-freedom-tolerance-and-non-discrimination-through_en

대한 이해와 차별 금지,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보편타당한 자유와 인간존엄성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은 서구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과학혁명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빈번한 국가 간의 교류와 이동으로 현대적 개념의 시민성 요소는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의 공동운명체이자 구성원으로서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개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III. 공적 이성과 시민종교 논의

이상에서 현대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서구사회의 공교육 관점에서 제시된 시민성 가치 요소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성 논의에 종교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주의 공적 이성(public reason) 논의에서 종교의 배제를 주장한 것으로 평가되는 롤즈(John Rawls)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시민종교 논의에서 교회(개신교)가 공적 이성의 중요한 요소로 참여하는 계기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자유주의 공적 이성 논의와 종교의 관계

정교분리가 철저히 강조되는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 공적 이성 논의에는 종교와 공적 이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이들 가운데 롤즈(John Rawls)는 공적 이성 논의에서 종교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롤즈의 사상을 읽어 가다보면 『정의론』에서의 그의 초기 입장과 『정치적 자유주

의』에서의 후기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리적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¹¹⁾ 아래에서 제시되는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설들(comprehensive doctrines)이 공존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¹²⁾ 공적 이성(public reason)은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이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을 합의하고 자신의 포괄적 교설을 통해 정당화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적 이성은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동적 과정,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포괄적 교설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립적(freestanding)인 방식으로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과 각 포괄적 교설들이 자신들의 좋음과 정의관의 옳음을 일치하면서 정의관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적 과정을 작동시킨다.¹³⁾ ‘중첩적 합의’는 제시된 정의관에 대해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이 자신들의 교설에 의해 충분한 이유를 통해 지지되고 수용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중첩적 합의는 포괄적 교설들이 동일한 근거에 의한 지지가 아닌 각기 다른 이유에 근거해 지지를 받는다.¹⁴⁾ 롤즈는 ‘중첩적 합의’가 단순한 힘의 균형을 의미하는 잠정 협정(modus vivendi)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안정성이라고 주장한다.¹⁵⁾ 이를 위해서는 공적 토론에서의 합의 내용인 옳음을 자신들의 포괄

11) 롤즈는 합당한 다원주의와 단순 다원주의(simple pluralism 또는 다원주의 그 자체 pluralism such as) 구분을 통해 자신의 논의는 전자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xvi).

12)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s)에서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해당 교설의 영향력이 인생 전반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관계에 관한 이상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포괄적 교설은 개인의 좋음(the good)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포괄적 교설에서 교설이라는 의미는 가치관, 인간론, 도덕적 이론, 종교적 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13)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133.

14) 위의 책, 134.

15) 위의 책, 146-154.

적 교설인 좋음이 지지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롤즈는 종교와 같은 포괄적 교설들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배제되는 『정의론』(1971)의 방식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즉 “넓은 견해”(wide view)를 옹호한다.¹⁶⁾

롤즈는 자신의 공적 이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힌다. 롤즈는 자신이 심의 민주주의자인 굿만(Amy Gutmann)과 솔럼(Lawrence Solum)과 나눈 공적 이성의 한계에 대한 서신과 토론 이전에는 공적 이성에 관한 배제적 견해, 즉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 교설의 견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이유들은 결코 공적 이성 안에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지지했었다고 고백하였다.¹⁷⁾ 이러한 견해가 부분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의 합의 정당화와 안정성 논의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러나 배제적 견해는 서구의 중요한 정치 변화의 공론장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종교와 같은 포괄적 교설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하고 설득하는데 효과적이었던 사례와 배치된다. 더욱이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이 정치적 정의관과 포괄적 교설 모두를 가진 존재인데 후자를 배제하고 전자만으로 공론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안정성을 확보하

16)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52.

17)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247.

18) 와잇만은 배제적 견해가 갖는 매력 중의 하나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확신(mutual assurance)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Paul Weithman, *Why Political 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28). 배제적 입장이 『정의론』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단일한 포괄적 교설에 토대를 두는 논의에서는 배제적 입장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상관없이 옳음인 정의관에 대해 좋음은 포괄적 교설이 일치, 즉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확신이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단일한 포괄적 교설에서 제시되는 정의관은 그 자체가 포괄적 교설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관점”이고 “통합적 견해”이기 때문이다(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1999) 4, 그리고 415).

기에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¹⁹⁾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일치하든지, 지지하든지 아니면 상충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관계 맺을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롤즈는 공적 이성의 배제적 견해를 포기하고 수용적 견해, 즉 “어떠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공적 이성의 이상 자체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포괄적 교리 속에 담겨있는 정치적 가치들의 토대로 생각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견해”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더 나아가서 롤즈는 “공적 이성의 재조명”에서 종교와 같은 포괄적 교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적 토론에 참여시키는 “넓은 견해”를 제시한다.²¹⁾ 롤즈에 따르면 종교적 교리이든 비종교적 교리이든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은 언제든지 공적 정치적 논의에 도입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도입을 통해 포괄적 교설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 정치적 이유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한다.²²⁾ 즉,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한 “수용적 견해”와 달리 “넓은 견해”에서는 논의되는 문제 상황이 질서 정연한 사회이든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이든 심각하고 깊은 수준의 정치적 분열

19)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140.

20) 위의 책, 247.

21) 롤즈는 공적 이성의 이런 이해를 수용적 견해라고 명명(this understanding of public reason we may call the “inclusive view”)한다고 말해 공적 이성의 수용적 견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247). 넓은 견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공정 이성 개념을 새롭게 접근하는 「공적 이성의 재조명」에서 이다. 그런데 넓은 견해라고 할 때 롤즈는 공적 이성의 넓은 견해라는 표현이 아닌 공적 정치 문화의 넓은 견해(the wide view of public political culture)를 사용한다(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152). 이런 이유로 공적 이성의 수용적 견해와 넓은 견해가 발전적 관계인지, 아니면 수용적 견해를 새롭게 넓은 견해로 수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롤즈가 동일한 사례(노예폐지론자)를 수용적 견해와 넓은 견해에서 모두 사용한다는 점에서 후자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양자의 관계가 무엇이든 변화되는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용적 견해와 넓은 견해를 구분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와이만도 비슷한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Paul Weithman, *Why Political Liberalism*, 329).

22)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152.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 단서만 충족되면 공적 토론 과정에서 포괄적 교리의 도입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정치관들에 지속적인 힘과 활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공적 이성의 넓은 견해는 종교를 포함한 포괄적 교설들이 공적 이성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롤즈의 정의관을 정당화하는 공적 이성이 종교와 맺는 관계성을 보면 그의 입장이 어떻게 정돈되어 가는지 볼 수 있다. 롤즈는 배타적 견해, 수용적 견해, 넓은 견해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변화는 롤즈 정의론이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을 주장하는 주관적 정의의 여건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판단의 부담을 전제하는 논의에서 종교와 같은 포괄적 교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포괄적 교설의 지지 없는 정의론이 옳음과 좋음의 일치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2. 시민종교 논의와 교회의 공적 참여

롤즈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공적 이성과 종교의 관계를 주장하였다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공적이성과 종교의 관계를 살펴보자.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시민성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합리성에 근거한 공적 토대를 제공하는 종교적 이성은 사상적 흐름 외에도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문화적 에토스를 제공해왔다. 최근 서구사회에서 종교의 공적 참여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성의 파트너로서 종교의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공적 이성이 종교 전통과 분리되지 않으며 정치적 정의와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

23) 위의 책, 153.

교는 필수적이라 언급한 바 있다.²⁴⁾ 하버마스는 공적 이성의 계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신앙에서 적절한 통찰을 찾길 원했고 특히 과학의 편협한 합리주의를 극복하는 희망의 자원으로써 신앙을 주목했다. 이성은 자기 충족적일 수 없으며 사회적 선택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종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²⁵⁾ 제프리 스타우트(Jeffrey Stout)도 현대사회에서 종교 윤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형성시켜왔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덕적 담론의 가장 세속화된 형태를 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학적인 결론에 설득당할 필요는 없지만 종교 전통의 연구가 도덕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고 보았다. 공적 담론에서 이루어지는 세속화 논의가 사람들의 삶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종교의 주장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기에 도덕적 언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신학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⁶⁾

공적 이성의 회복을 위한 종교의 참여는 시민종교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는 “미국 안의 시민종교(Civil Religion in America)”에서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적 종교는 특정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사회적 친밀도를 높이고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가치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일반 종교로서 시민 종교가 등장했음을 주장하였다.²⁷⁾ 오늘날 공적 광장에서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그동안 공적인 삶의 토대가 되었던 오랜 종교적, 시민적 인생관이 실종했기 때문이며, 과거의 교훈들, 즉 종교 전통들과 긴밀

24) Craig Calhoun, “Secularism, Citizenship, and the Public Sphere,” in *Rethinking Secularism*, (Cambridge: James Clarke & Co Ltd, 1988), 80-81.

25) 위의 글, 84. “

26) Jeffrey Stout, *Ethics after Babel: The Languages of Morals and Their Discontents*, (Cambridge: James Clarke & Co Ltd, 1988), 187-188.

27) Robert N. Bellah,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 NO 1. (winter, 1967), 3-4.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세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북코리아, 2007), 67에서 재인용.

히 묶여 있던 교훈들을 잊어버려서이다.²⁸⁾ 퍼트남(Robert Putnam)은 종교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의 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자본으로 인식하였으며 시민사회로서 지역교회들은 다른 시민조직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대인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²⁹⁾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다언어로 다원화되는 21세기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통의 지지기반이 필요하기에 그 자원으로 종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리프먼(Walter Lippmann)은 모든 시민들이 지지하는 선한 의지로서 자연법과 일반 이성의 부활을 주장한다. 리프먼 역시 근대성의 폐해로 개인주의의 부상과 상대주의의 만연이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공공철학의 관점에서 공공선의 회복을 주장한다.³⁰⁾ 니버(Reinhold Niebuhr)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리프먼을 지지하면서 그는 철학과 신학을 결합하면서 기독교의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한다. 즉, 기독교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니버는 종교의 다양성 문제를 종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더 높은 차원의 종교적 헌신으로서 관용의 정신, 종교적 관용이 민주사회에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³¹⁾

뉴하우스(Richard John Neuhouse)는 벨라(Robert N. Bellah)의 시민종교 논의가 미국을 지지하는 하나의 제도종교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적 토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공공 철학적 성격을 규명한 것이라 보았

28) 리처드 마우,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2014), 88.

29) 로버트 우스노우, 정재영, 이승훈 역, 『기독교와 시민사회』 (서울: CLC, 2014), 41.

30) Robert N. Bellah, "Public Philosophy and Public Theology in America Today," Leroy S. Rouner ed., *Civil Religion and Political Theology*, (Notre Dame: University of Norte Dame Press, 1986), 82-84.

31) Reinhold Niebuhr, *Children of Light and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Prentice Hall, 1974), 134-135.

다. 그는 종교가 제의적 특징, 거룩한 권위, 체계적인 제도, 공적인 교리, 소속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벨라의 시민종교는 제도화된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미국 사회와 생활의 종교적인 측면을 주장한 것이라 말한다.³²⁾ 다시 말해 시민종교는 일반적인 종교로서의 역할이 아닌 시민 사회의 종교성에 관한 것으로 이성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종교적 공동체성과 신념체계를 공공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민종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그 자체로 제도화된 신념의 체계를 갖추지 않기에 종교로서 인정될 수 없지만 사회의 토대를 구성하는 요소로 종교의 신념, 상징, 제의들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 종교의 공적 복귀가 종교의 회복과 부흥이 아닌 세속화 이후 사회가 간과해왔던 초월적 가치의 추구하고 관계성을 재구성할 종교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시민종교가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공적인 경건한 삶, 그리고 공공철학 등은 사회의 공적 이성을 구성하는 핵심인지도 모른다.³³⁾

사회적 정서적 연대, 도덕적 가치 회복, 시민들의 일상성 재발견을 위한 시민종교에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벨라는 미국이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중동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와 권력의 촉매제로 사용하는 일을 비판한다. 다시 말해 종교가 국가주의나 정치권력과 연대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것은 언약의 파기이며, 언약의 오용이다. 시민종교가 사회의 연대와 융합을 촉진시키도록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종교적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종교의 공적 역할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벨라의 시민종교 개념은 고전적인 공화

32) Richard John Neuhaus, "From Civil Religion to Public Philosophy", Leroy S. Rouner eds., *Civil Religion and Political Theolog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99-101.

33) 위의 글, 103-106.

주의자들의 덕 전통과 현대 자유주의적 정치 전통의 불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화주의적 전통은 기본적으로 칼뱅주의 전통과 뒤르켐(David Émile Durkheim)의 기능주의적 전통, 그리고 공리주의와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벨라의 시민종교는 국가의 신성화를 통하여 하나의 종교적 대상으로서 충성을 강요할 우려가 다분하다. 시민 종교가 규범적인 정치적 공동체를 통합하는 힘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할 때 시민 종교는 다시 형성되기 힘들 것이다.³⁴⁾ 시민종교가 구성원들의 소속감 증대와 도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 정치적 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된다. 그러나 시민 종교의 오용에 대한 염려는 전체주의와의 결합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로우너(Reroy S. Rouner)도 미국의 시민 종교가 미국 시민들의 공통의 정체성을 제공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미국의 꿈과 신화를 성취하기 위한 정당성을 제공하거나 미국을 신성화하는 종교적 교리를 제공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³⁵⁾

IV. 한국 개신교와 근본주의, 그리고 시민성 분석

이상에서 현대 시민사회의 종교(기독교)의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공적 이성과 시민종교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개신교(기독교)는 서구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성과 시민 종교 차원의 시민성 논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기독교)

34) Jose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58-60.

35) Leroy S. Rouner, "To be at Home: Civil Religion as Common Bond", Leroy S. Rouner eds., in *Civil Religion and Political Theology*, (Norte Dame: University of Norte Dame Press, 1986), 128-136.

가 과연 건강한 의미의 시민성을 형성하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한국의 개신교가 서구 사회에서 시민종교 형식의 틀 안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띄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현재 한국의 개신교가 드러내고 있는 시민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근본주의 개신교인(기독교인)들의 시민성 현상

한국의 개신교 근본주의는 매우 독특한 문화적·역사적 배경, 즉 다종교 문화, 한국의 근대화 과정, 미국 근본주의의 유입, 한국전쟁의 경험 등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근본주의 개신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첫째 근대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초기 개신교는 민족운동과 3·1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보였으나 점차로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성서무오론에 근거한 내세 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일제 말기에는 많은 개신교단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태평양 전쟁을 옹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가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독재를 지지하고 경제성장을 제일 가치로 여기면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르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정당화하였다. 산업화시대를 지나서 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완성된 현 시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이러한 모습은 근대성의 기초인 합리성과 다원성을 부정하면서, 개신교인들이 타인을 배타적으로 대하게 만드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³⁶⁾

또한 한국 개신교는 강력하게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면서 심각한 레드콤플렉스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강점기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서 반공주의적인 경향을 보여 왔던 한국 개신교는 한국 전쟁을 전후로 강력한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들과 관계를 다져온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주도권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키워갔다. 이후 한국 개신교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제일 가치로 두고 사회 통합이 아닌 '적과 야'를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고를 발전시켰다.³⁷⁾ 물론 전쟁의 경험 이 만들어낸 사회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 개신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은 근본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에서 기인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혜를 받아왔다.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서 주어진 특혜를 비롯해서 한국전쟁 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 정권의 반공주의를 후원하는 기독교는 상당한 특혜를 누려왔다. 예를 들어 1960년대 70년대에 불교는 재산관리법이나 사찰보존법 등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왔지만, 한국의 개신교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교인 과제법안을 제정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힘을 누려왔다. 이후 진보정권이 들어서자 기독교 권 상실의 위기감을 느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사학법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기독교당, 기독교사랑실천당, 기독교자유민주당, 기독교자유당 등의 정당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³⁸⁾

36) 장형철,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특성에 대한 종교 사회학적 고찰 -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84(2019), 221-227.

37) 위의 글, 227-234.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의 보수 개신교에서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근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근대성에 반대하고 근대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세속화를 거부한다. 또한 종말론적 사고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강력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드러낸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힌 근본주의는 자신들의 신앙을 공공의 영역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진보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등의 용어로 배척한다. 이것은 성서의 유기적 영감을 믿으며 성서의 문화화 환경을 이해하고 합리성에 근거해서 기독교신앙을 변호하고자 하는 복음주의 개신교와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한국의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³⁹⁾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한국 개신교는 현재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여준 한국 개신교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지점은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서 성장해온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후 세대에 개신교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개신교인(기독교인)의 시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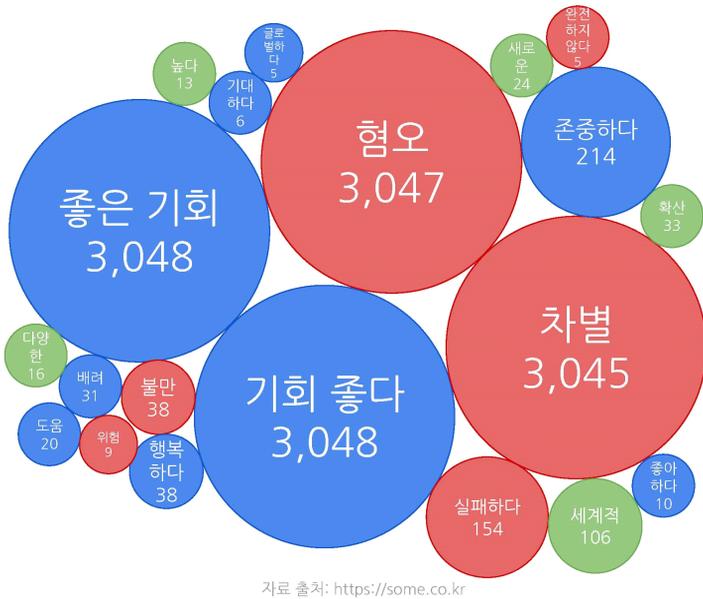
본 연구는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시민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⁴⁰⁾ 2020년 8월에서 2020년 12월 현재까지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38) 위의 글, 234-238.

39) 위의 글, 208-211.

40) 본 연구는 빅데이터 전문 기관인 썬트랜드(some.co.kr)에 의뢰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한국 개신교인들에 대해 발화하고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시민성을 측정해보았다. 빅데

상황에 직면하여 기독교 안팎에서 시민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거세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시민성’을 키워드로 지난 1년간의 주요 감성어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림 1〉 키워드 ‘시민성’으로 드러난 한국인들의 발화 데이터(괄호 안은 빈도), (이하 그림에서 파란색은 긍정, 빨간 색은 부정, 초록색은 중립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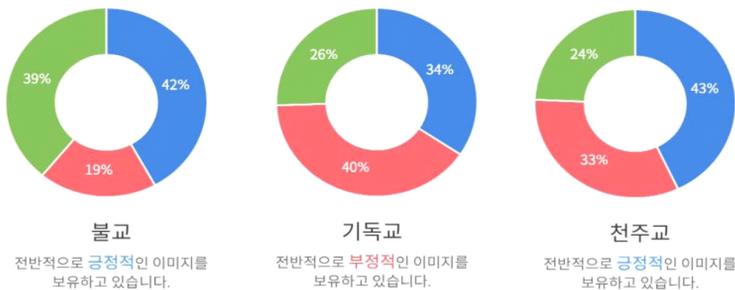
이터를 이용한 연구 분석의 방법은 보통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 수집)을 통한 키워드 분석 과정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어 검색 및 분석으로 이뤄진다. 본 연구는 참여연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민성, 종교(개신교, 천주교, 불교), 공공성, 사회성, 배려, 존중, 차별, 혐오 등의 감성어를 포함한 주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포털 뉴스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서술’을 위한 연구방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근분주의 기독교인들이 드러내고 있는 시민성을 ‘서술’하기 위한 도구로 빅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앞선 장에서 살펴본 시민성의 ‘규범’들 과도 연결지어서 논증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서술’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규범’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 8월과 9월에 주로 등장한 감성어들을 수집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빅데이터의 특성상 기독교인의 직접 발화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비쳐지고 있는 모습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시민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로 발화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기회, 차별, 혐오, 존중, 세계(적) 등이었다. 이러한 발화의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서구사회가 발전시켜온 시민성의 주요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서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발전시켜온 공공성의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시민성이 직접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편적인 시민성과 함께 한 사회의 관심사가 시민성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위의 내용과 함께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세 종교의 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세 종교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개신교(기독교)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반면 천주교와 불교의 이미지는 좋게 드러났다.



Powered by Sometrend(<https://some.co.kr>)

〈그림 2〉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미지 분석

한편 본 연구가 시민성과 관련해서 본 데이터를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감성어 랭킹 데이터이다.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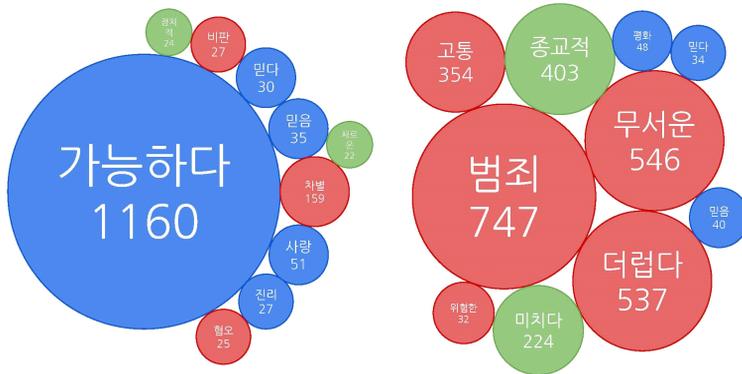
'불교' 감성어 랭킹				'기독교' 감성어 랭킹				'천주교' 감성어 랭킹			
순위	분류	키워드	언급량	순위	분류	키워드	언급량	순위	분류	키워드	언급량
1	중립	놀라다	39,096	1	공정	믿다	22,692	1	공정	좋다	6,325
2	공정	사랑	12,710	2	중립	웃기다	19,816	2	중립	미치다	5,830
3	중립	다르다	9,381	3	공정	사랑	19,068	3	공정	사랑	4,902
4	공정	믿다	5,728	4	공정	믿음	16,258	4	부정	무릎꿇다	4,515
5	공정	진리	5,294	5	공정	진리	13,604	5	부정	욕먹다	4,374
6	공정	사랑하다	4,129	6	부정	미안하다	13,485	6	중립	웃기다	3,499
7	부정	고통	4,043	7	중립	다르다	8,666	7	공정	평화	3,150
8	공정	애정	3,847	8	중립	변화하다	7,158	8	공정	믿다	3,022
9	중립	다양한	3,629	9	부정	범죄	7,102	9	중립	인정하다	2,766
10	중립	새로운	3,476	10	부정	눈치 보다	6,445	10	부정	고통	2,177

Powered by Somemtrend(<https://some.co.kr>)

위의 표에서 보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범죄'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민성의 관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기독교가 한국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 즉 범죄를 연상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에서 개신교(기독교)가 드러내고 있는 이미지의 부정적인 단면을 매우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키워드로 하여 시민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를 메인 키워드로 상정하고 '사회성', '공공성', '시민', '세계화', '차별', '존중', '범죄' 등을 포함어로 넣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사회성', '공공성', '시민', '존중', '세계화' 등의 포함어 분석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으며, '차별', '범죄'등의 키워드에서 아래와 같

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분석은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 하였으나, 월간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가 주로 등장한 8월 혹은 9월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차별’과 ‘범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료 출처: <https://some.co.kr>

〈그림 3〉 기독교를 키워드로 ‘차별’과 ‘범죄’를 포함어로 분석한 데이터, 왼쪽 - 차별/오른쪽 - 범죄

왼쪽의 ‘차별’에 대한 데이터는 지난 9월에 나온 데이터로 현재 보수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드러난 결과이다. 다수의 한국 시민사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찬성의 의견을 보이는 것에 반해서 한국 보수 개신교는 반대로 일관하면서 혐오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보수 개신교의 시민성의 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기독교를 키워드로 ‘범죄’를 포함어로 한 오른쪽의 분석에서는 한국 시민 사회가 기독교를 향해서 발화하는 지점은 기독교의 사회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뻔뻔함으로 일관한 결과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개신교를 ‘범죄’라는 키워드와 연결시켜서

바라보고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가 드러낸 시민성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사회성’, ‘시민’, ‘세계성’, ‘공공성’, ‘존중’ 등과 같은 시민성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가 기독교와 연결해서 의미 있는 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국 개신교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차별’이나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 드러나는 것은 한국 개신교가 극단적인 이분법에 사로잡혀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성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본 연구가 3절에서 논의한 규범정의, 시민종교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도출되어,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 한국 기독교가 시민종교의 관점에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으며 성도들 역시 기독교만의 분절된 세계관과 시민성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

V. 건강한 기독교시민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적 대안

이상에서 본 연구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의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면서 공적 이성 논의에 종교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의 시민성 논의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 덕목과 거리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 개신교의 건강한 기독교시민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사회윤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롤즈 논의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민주주의적 덕성이 개신교 전통 안에서 어떻게 함양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건강한 기독교 시민성 형성을 위한 롤즈의 방안: 민주주의적 덕성을 통한 시민성의 의무

롤즈는 종교적 포괄적 교설이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관의 합당성뿐만 아니라 정당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이 어떻게 특정 종교를 갖는 사회 구성원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에 따르면 볼프(Miroslav Volf)는 롤즈와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 사회는 특정 종교가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할 수 없는 '다차원적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에 토대를 둔 다원주의 사회라고 주장한다.⁴¹⁾ 따라서 기독교가 이제는 여러 입장 중 하나라는 사실과 자신의 견해가 주변부로 밀려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종교를 정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 롤즈는 합당한 다원주의, 즉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갖춰야 할 민주주의적 덕성(virtue)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롤즈의 합당성 개념에서 어떤 민주주의적 덕성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다.

인그램(Attracta Ingram)은 롤즈의 합당성을 이해가능성으로서의 의미(reasonableness as the sense of intelligibility), 판단의 부담으로서의 의미(reasonableness as the burdens of judgment), 조정의 의미(reasonableness as the sense of moderation)로 구분한다.⁴²⁾ 이해가능성으로서의 합당성은 포괄적 교설들이 상호 이해가 가능하고 양립 가능할 정도의 다원주의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는 자신의 포

41) Nicholas Wolterstorff, "Miroslav Volf on living one's faith," *Political Theology* Vol.14(1). (2013), 721-726.

42) Attracta Ingram, "Rawlsians, Pluralists, and Cosmopolitans,"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Supplement* Vol.40. (1996), 154-155.

괄적 교설을 사회 다른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소통 하려는 노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공적 토론에 종교적 포괄적 교설이 개입하는 수용적 견해나 넓은 견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언어의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다른 종교의 포괄적 교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에 기반한 이해는 판단의 부담으로서의 의미와 조정의 의미에 대한 토대가 될 수 있어 서구 시민교육의 시민성 요소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판단의 부담으로서의 합당성은 자신의 입장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타인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는 상호 존중의 태도의 인간관과 관련된다. 이러한 태도는 밀이 인간의 오류가능성을 근거로 자유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다른 종교에 대해 진정 경청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⁴³⁾ 즉,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가 다원화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타종교에 대한 경청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민주적 이해와 태도 없이는 토론이나 합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존중과 경청의 태도는 롤즈의 논의에서 공적 이성의 역설을 해소하려는 시민성의 의무로 나타난다. 롤즈는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때,” 결국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에 호소하여 해결해야만” 합을 주장하면서 공적 이성의 역설을 제시한다.⁴⁴⁾ 롤즈는 이러한 역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성의 의무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의무는 타인의 논의를 기꺼이 경청하려

43) 레슬리 뉴비긴, 홍병룡 옮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서울: IVP, 2005), 180.

44)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216.

는 자발적 의사와 이들의 입장에 대한 조정이 언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공정한 마음가짐을 의미한다.⁴⁵⁾ 이러한 시민성의 의무가 바로 광의적 의미의 시민적 덕성, 즉 민주주의적 덕성인 상호 존중과 연대성을 의미한다. 롤즈가 말하는 시민들은 자신을 공적 영역에서 공적 이성을 활용하여 토론을 전개하는 시민이라는 생각과 자신을 자신의 포괄적 교설에 따라 토론을 전개하는 시민이라는 생각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양면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 태도를 견지한다.

조정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동참한다는 확신이 주어진다면, 자신도 기꺼이 협력의 공정한 조건으로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합의 과정에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 그리고 더 나아가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사회 협력체계에 기꺼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롤즈의 합당성 개념 자체가 없다면 합의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여 무지의 베일을 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합당성 개념은 롤즈 논의에서 중요하다. 또 조정의 의미로서의 합당성은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의존적 협력에 대한 신념이라는 인지적 측면과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된 연대성 개념과 관련된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합리적(rational)이며 합당(reasonable)하다고 전제한다. 여기서 합리성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요소를 표현한다면 롤즈의 합당성은 정의감과 관련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표현한다. 롤즈가 말하는 합당한 사람들은 공정한 자세로 사회적 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면서 판단의 부담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⁴⁶⁾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설

45) 위의 책, 217.

46) 위의 책, 54-58.

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열린 마음가짐, 기꺼이 논거를 제시하려는 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자세와 같은 자유주의적 덕목들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⁴⁷⁾ 다시 말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람은 2장에서 논의한 서구 시민교육에서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시민성의 가치를 가진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시민성, 공공 신학의 관점에서의 시민성이 추구하는 가치와 시민의 역할과 책임은 서구사회 교육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시민성의 개념과 다르지 않으며, 개신교는 교회의 올바른 예배의 가르침과 성도에 대한 신앙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시민양성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는 공존을 통해 사회적 변명과 평화를 도모한다. 롤즈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정치적 토론에 사용되며 안정성의 토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 구성원이 갖춰야 할 민주주의적 덕성, 즉 합당성 개념에 내재된 상호 존중과 연대성을 통한 관용과 포용 그리고 타인과의 협력 태도로 나타나며 본 연구의 빅데이터 결과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덕성이 어떻게 종교,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 함양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건강한 기독교 시민성 형성을 위한 개신교의 방안: 평화와 환대의 내러티브

마우(Richard Mouw)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신념 있는 시민

47) William Galston, *Liberal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21-224.

교양(faithful civility)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공적인 삶에 부합하는 내적인 겸손이라 주장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은혜로운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타자를 향한 연민과 낯선자를 선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⁸⁾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가치와 덕의 함양은 시민교양의 전통을 담보하고 있는 종교의 주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티먼(Ronald Frank Thiemann)은 교회를 덕의 훈련소로 이해했다. 인종, 문화,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시민들을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도덕성과 에토스의 제공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지대하기에 생명과 인권, 자유를 향한 기독교의 공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공동체들의 공적 삶을 위한 모델이 되어야하며, 하나됨을 위한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는 초기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신앙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연합하려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의 가치와 덕목들을 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 에토스를 세워가는 실천적인 장으로서 교회는 공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적 섬김은(public service) 세상을 위한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⁴⁹⁾

특정한 덕목과 성품은 개인의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훈육되어지고 반복될 때 가능해진다. 각각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담은 의례와 규칙, 생활 습관들이 체득될 때 특정한 덕목과 성품이 체득되는 것이다. 공동체마다 지니고 있는 역사와 전통은 그들만의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구분할 뿐 아니라 그것은 예전과 절기, 축제를 통하여 구체화된다.⁵⁰⁾ 덕과 성품을 강조하는 것

48) 리처드 마우,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2014), 20-21.

49) 위의 책, 122-124.

50) 김승환, “덕과 성품, 그리고 공동체,” 김동규 외, 『우리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은 인간으로 무엇을 해야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의무론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선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의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덕은 습득된 인간의 성질로, 덕의 소유와 실천은 우리가 어떤 실천에 내재하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된다.⁵¹⁾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될까? 바로 내러티브이다. 공동체가 지니는 저마다의 내러티브(이야기)는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유지시킨다. 성서의 이야기와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사고를 일깨우게 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분별하며 해석하게 한다.⁵²⁾ 교회 공동체는 성서의 내러티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에 따르면 예수 내러티브는 독특한 사회윤리를 제공한다. 교회됨과 그리스도인됨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윤리로서 공적 참여의 한 방식이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성품화하는 덕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근본주의로 얼룩진 최근 한국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예수의 내러티브가 배타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두를 향해 열려 있는 개방성과 자기 헌신을 전제로 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기독교 시민성은 상호적 대화와 공론장의 이성적 토론이 가능한 합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적 이성의 형성을 위한 시민적 태도와 교양을 충분히 담보할 실천적 이성이다.

더 나아가서 하우어워스는 비폭력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내

(도서출판100, 2020), 94.

51) 스탠리 하우어워스, 문시영 역, 『교회됨』 (성남: 북코리아, 2010), 282.

52) Oliver O'Donovan, *Self, World and Time*, (Grand Rapids: Eerdmans, 2013), 79.

러티브를 조명한다. 종교와 제국의 결합한 기독교국가 이데올로기(Christendom)의 폭력적인 신앙의 방식을 버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비폭력의 방식으로 화해를 실천하는 삶을 강조한다. 평화는 복음이 전하는 내러티브의 핵심이며 예수의 삶 그 자체이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덕목의 근거이자 갈등과 분쟁을 넘어선 평화로 향한 제자들의 구체적인 지침이기도 하다. 비폭력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핵심요소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적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⁵³⁾ 이러한 하우어워스의 입장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덕목들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기독교 공동체주의가 분리주의 또는 소종파주의란 오명을 받고 있지만 신앙의 덕목형성을 위해 내러티브와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하는 탁월한 지점은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교회 공동체 내부로 향하는 집중성을 거부하고, 평화와 화해를 향한 시민성 함양에 집중한다면 평화의 삶을 살도록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주요한 인적 자원들이 될 것이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사회적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선을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사회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부르스마(Hans Boersma)는 교회가 복음의 공적 선포와 더불어 우리가 현대의 공공 얼굴을 목격하는 제일의 장소이며 신적 현대의 정의가 추구되는 제일의 공공 영역으로 보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 공적 정의를 위한 자극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⁵⁴⁾ 부르스마는 교회를 현대의 공동체로 여기면서 동시에 교회만이 유일한 공공영역이 아니며 교회 바

53)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197-198.

54) 한스 부르스마, 윤성현 역, 『십자가, 폭력인가 현대인가』 (서울: CLC, 2014), 406.

끝에도 환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복음은 타인 중심적인 용서와 타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이며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⁵⁵⁾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창조의 본래적 인간성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며, 죄로 인해 이기적 자아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를 추구한다. 성만찬도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하나 되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교회의 평화와 환대는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신적 사랑과 구원을 기초하는 성만찬에서 극에 달한다. 성만찬적 환대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용서와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이다. 부르스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사를 언급하면서 주의 식탁은 신적 환대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예수님과의 친교와 더불어 종말론적인 연회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⁵⁶⁾ 성만찬은 육적인 삶을 넘어서 초월적인 삶으로 안내할 뿐 아니라 함께하는 성만찬의 예전을 통해 구성원 간의 참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의 의식은 참된 도시 공동체의 신앙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제안한다. 성만찬이 경계없는 환대를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참회와 죄사함으로 이어져야하며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만찬의 환대 공동체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가시적 공동체의 형식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한다는 면

55) 위의 책, 353-364.

56) 위의 책, 366-370.

에서 사회변혁적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성만찬은 예수의 고난에 대한 회상의 만찬과 슬픔의 만찬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지평을 갖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성만찬은 공동체가 이 세상의 배고픈 자들,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건이며, 소외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다.⁵⁷⁾ 캐버너(William T. Cavanaugh)는 성만찬이야말로 진실된 정치(true politics)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성만찬 안에서 인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며, 정부가 이룩하지 못하는 구원의 완성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세워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만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회복한다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화해를 향한 공적 행위를 일상에서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전이 단지 종교적 영역에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지향하는데 강력한 동기로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⁵⁸⁾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하늘과 땅,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몸과 영혼을 연결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 평화와 화해의 성만찬적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fullness)을 미리 맛보게 하면서 종말론적인 시공간을 살아내게 한다.⁵⁹⁾ 성만찬적 정치 공동체는 세속사회가 파편화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진정한 정치체로서 공동체가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57) 김균진,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서울: 새물결출판사, 2016), 253-255.

58) Eric O. Jacobsen, *The Space Betwee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204.

59) William T. Cavanaugh, *Torture and Eucharis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225-228.

원동력을 제공하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시민성의 발현으로서 평화를 실천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한국 개신교와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시민성의 차원에서도 공동체적 삶을 위한 연대와 연합, 평화를 추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VI. 나가는 말

이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한국 개신교(기독교)가 드러내고 있는 시민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면서, 시민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가 윤리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시민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면서 시민성의 기본 가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후 종교(기독교)가 공적이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시민종교의 차원에서 시민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한편 한국 개신교(기독교)가 이러한 시민성을 건강하게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를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가 드러내고 있는 시민성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개신교는 특정 부분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시민성이 드러나지만, 서구 사회가 발전시킨 공적 종교의 차원에서 시민성은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사회윤리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소극적인 윤리적 실천의 차원에서 톨스의 공적이성과 연결하여 사회적 덕을 발전시켜야 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평화의 환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적 내러티브를 실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개신교 신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개신교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 시민성의 개념과 가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민성과 기독교 시민성의 이원화된 접근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발전을 위한 포용적 시민성의 개념과 가치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고 가르칠 기독교윤리실천과 방법론적 논의도 더불어 병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향후 기독교 시민성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 윤리적 개념들이 한국적 관점과 전 세계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 2020년 2월.
- 김균진.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서울: 새물결출판사, 2016.
- 김승환. “덕과 성품, 그리고 공동체,” 김동규 외. 『우리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도서출판100, 2020).
-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성남: 북코리아, 2007.
- 뉴비긴, 레슬리. 홍병룡 옮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서울: IVP, 2005.
- 마우, 리처드. 홍병룡 옮김.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2014.
- 목광수. “민주주의적 덕성과 공론장,” 『사회와 철학』 25(2013), 365-398.
- 박상필. “시민사회의 한국적 적용과 변용”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 109-145.
- 부르스마, 한스. 윤성현 옮김.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서울: CLC, 2014.
- 우스노우, 로버트. 정재영, 이승훈 옮김, 『기독교와 시민사회』. 서울:CLC, 2014.
- 이종일. “사회변동과 시민성 논쟁.” 『사회과교육연구』 25-3(2018), 1-19.
- 장형철.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특성에 대한 종교 사회학적 고찰 -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84(2019), 207-224.
- 정재원. “혐오사회와 공존의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2019), 99-118.
- 하우어워스, 스탠리. 문시영 옮김. 『교회됨』. 성남: 북코리아, 2010.
- Bellah, Robert N. “Public Philosophy and Public Theology in America Today,” Leroy S. Rouner ed., *Civil Religion and Political Theology*, Notre Dame: University of Norte Dame Press, 1986.
- Ben. Kisby, & Sloam, James, “Revitalising Democracy”, in *Civic Educa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resended paper. Canada, 2009.
- Calhoun, Craig. “Secularism, Citizenship, and the Public Sphere,” *Rethinking Secularism*, Cambrige: James Clarke & Co Ltd, 1988.

- Crick, B.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Galston, William. *Liberal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Harber, C. "Not quite the revolution: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M. Schweisfurth, L. Davies & C. Harber eds., in *Learning democracy and citizenship*. Oxford: Symposium Books, 2002.
- Ingram, Attracta "Rawlsians, Pluralists, and Cosmopolitans,"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Supplement* Vol.40. (1996), 147-161.
- Jacobsen, Eric O. *The Space Betwee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 Murphy, Andrew R. "Rawls and a Shrinking Liberty of Conscience," *The Review of Politics* Vol.60(2). (1998), 247-276.
- Niebuhr, Reinhold. *Children of Light and Children of Darkness*. New York: Prentice Hall, 1974.
- O'Donovan, Oliver. *Self, World and Time*, Grand Rapids: Eerdmans, 2013.
- Owen, Diana. "Comparisons of Parliamentary and Coordinated Power Systems", presented paper in *Civic Education and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German-American Conference, Indiana 2011.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QCA)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the Crick report)*. London: QCA. 1998.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1999a
- _____,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b
- Rouner, Reroy S. "To be at Home: Civil Religion as Common Bond", Leroy S. Rouner eds., *Civil Religion and Political Theology*, Notre Dame: University of Norte Dame Press, 1986.
- Stout, Jeffrey. *Ethics after Babel: The Languages of Morals and Their Disconte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Wolterstorff, Nicholas (2013), "Miroslav Volf on living one's faith," *Political Theology* Vol.14(1), 721-726.

Weithman, Paul, *Why Political 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William T. Cavanaugh, *Torture and Eucharis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08347/SECONDARY_national_curriculum_-_Citizenship.pdf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promoting-citizenship-and-common-values-freedom-tolerance-and-non-discrimination-through_en

<https://some.co.kr/mypage/storage/analysis>

논문투고일: 2020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08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한국 개신교(기독교)가 드러내고 있는 시민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면서, 시민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가 윤리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는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시민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면서 시민성의 기본 가치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후 종교(기독교)가 공적이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시민종교의 차원에서 시민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한편 한국 개신교(기독교)가 이러한 시민성을 건강하게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를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가 드러내고 있는 시민성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 개신교는 특정 부분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시민성이 드러나지만, 서구 사회가 발전시킨 공적 종교의 차원에서 시민성은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윤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종교의 모습을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차원에서는 톨스의 공적 이성의 측면에서 덕을 발전시켜 낼 것을 주장하였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평화의 환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적 내러티브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주제어: 시민성, 공적 이성, 시민종교, 근본주의 개신교, 평화와 환대, 기독교사회윤리
